

# 동아시아 문학인들 제주에서 팬데믹 시대 성찰

### 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 '경계를 넘어... 미래로' 한국 은희경·장이지 작가 중 루민·일 가토 아쓰코 3국 문학인들 발표 말아



은희경 장이지 루민 가토 아쓰코

동아시아의 문학인들이 제주에서 만나 팬데믹 시대의 불안이 낳은 혐오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24일 오후 5시10분부터 6시30분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는 제16회 제주포럼 문화세션을 통해서다.

이번 문화세션은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마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수자, 젠

더, 인종, 세대 등에 혐오와 차별로 인한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이 모여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깊이있게 성찰하고 문학의 인류애적인 감수성으로 해결점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문화세션에 초청된 문학인은 한국의 은희경 소설가와 장이지 시인, 중국 소설가 루민(魯敏), 일본 문학평론가 가토 아쓰코(加藤敦子)다. 중국과 일본의 문학인들은 온라인을

활용해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제주 출신 문학평론가인 고명철 광운대 교수가 맡는다.

소설가 은희경은 '새의 선물',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타인에게 말 걸기' 등을 발표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5월엔 단편 소설 '장미의 이름은 장미'로 제29회 오영수문학상을 수상했다.

장이지(필명) 시인은 시집 '안국동울음상점', '레몬엘로', '해저의

교실에서 소년은 흰 달을 본다' 등이 있고 평론집 '환대의 공간' 등을 펴냈다. 오장환문학상 등을 수상했던 시인은 현재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 70세대 소설가 루민(魯敏)은 단편 소설 '반연(伴宴)'으로 중국 내 최고 권위의 루쉰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다.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인물과 익숙한 생활상을 통해 인간 내면의 질병과 사회의 암흑을 장·단편 소설로 그려왔다.

문학평론가 가토 아쓰코는 일본 현대문학과 근세문학 등 40여 편의 논저가 있다. 영남대 등 국내 대학에도 재직하고 있다.

이날 문화세션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발표 실황은 온라인(유튜브, 네이버TV)으로 생중계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은의 '행복한 풍경'.

## 제주 섬 수수한 풍경 짙어진 색감

### 고은 돌담갤러리 개인전 '바다 주기' 연작 등 펼쳐

고은 작가는 시멘트 벽면 사이로 돌들이 얼굴을 내미는 시골 슬레이트 집, 강아지와 나비들이 어울려 노는

꽃들 피어난 마당으로 또 한 번 이끈다. 이달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돌담갤러리에서 열리는 열두 번째 개인전을 통해서다.

고 작가는 한국의 전통 수묵화 필선과 채색화를 접목시켜 따스한 감성과 제주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며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 가을 한라일보 갤러

리 이디(ED) 3인 초대전 기간에 마련된 작가와의 대화 자리에서 "인문학적 사유를 더해 변화하는 제주 자연을 나만의 화법을 남기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던 그는 이번에 신작 20점과 드로잉을 통해 그 길로 향하는 여정을 풀어내고 있다.

장지에 분채 작업으로 표현한 '행복한 풍경', '바다주기' 연작은 제목 시 중앙로 돌담갤러리에서 열리는 열두 번째 개인전을 통해서다.

고 작가는 한국의 전통 수묵화 필선과 채색화를 접목시켜 따스한 감성과 제주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며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 가을 한라일보 갤러

## 도심 전시장에 피어난 목향 따라 쉼표

### 정연희 20주기 해정 추모전 도서예가협회 32회 회원전

제주시 도심 문예회관 1전시실에 제주 서예가들의 목향이 잇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서예가협회와 정연희가 각각 마련한 전시다.

서예단체 정연희는 이달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정 추모 서전을 갖는다. 제주 출신 서예가 해정 박태준(1926-2001) 선생의 서예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연희는 "해정은 우리 시대 행서, 초서의 대가로 칭송을 받으셨다"며 "바른 필법과 진지하고 정직한 서예 정신을 후학들에게 강조했고 몸소 그렇게 실천한 별과 같은 분"이라고

했다. 추모 서전 일정은 매년 해정의 기일(6월 25일)에 맞춰왔다.

해정 선생의 20주기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전시는 '공감, 소통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정했다. 해정 선생의 유작 3점과 함께 정연희 회원, 초대 작가가 참여해 한문·한글 서예 총 60여 점을 선보인다.

사단법인 제주도서예가협회는 지난 19일부터 회원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이 서른두 번째로 고영진 이사장 등 회원 42명이 참여했다.

이달 24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에서는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등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1990년 출범한 제주도서예가협회는 서학 연구, 창작 활동을 통해 서예 발전과 대중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전선희기자

### 갤러리 ICC 제주 초대전 이치우 사진전 '신비의 섬'



이치우의 '수국과 산방산'.

익숙한 제주 풍경에 신비로움을 더한 사진으로 고향 사랑을 풀어낸 전시가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위치한 갤러리 ICC 제주 초대전으로 진행 중인 이치우 사진전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출신인

그동안 네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30여 년 제주를 담아온 그는 특히 개발과 현대화의 바람으로 콘크리트 건물이 솟아나는 제주를 보며 제주의 자연과 대대로 내려온 제주인의 삶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신비의 섬 제주'를 주제로 지난 12일 시작돼 7월 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사계, 산방산, 송

악산, 서귀포 칠십리 등 제주 구석구석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가 알맞은 날씨와 계절 등 가장 찬란한 순간이 오는 때를 기다려 촬영한 사진들로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하는 풍경들이다.

전시장은 연중 무휴 운영되는 곳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문의 735-1024.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쏘다

### '제주의 고래' 박물관 교육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의 고래'를 주제로 7월 '꼭꼭 박물관'을 운영한다.

꼭꼭 박물관은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를 '꼭' 짚어 알아보고 '꼭' 하면서 체험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7월에는 고래의 종류와 진화 과정, 제주 고래 이야기를 접한 뒤 고래가 사는 세상을 상상하며 그린 후 아크릴 무드등을 만드는 교육으로 준비됐다.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육 영상은 7월 9일부터 박물관 유튜브 등으로 시청할 수 있다. 키트는 접수 시 주소로 우편을 통해 배부한다.

### 김창열미술관 미술 교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지난 18일부터 미술관과 가까운 금악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재미있는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월 2일까지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교육은 2021년부터 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창작스튜디오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제주 출신 강주현 입주 작가와 20대 청년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재미있는 미술 교실'에서는 풍경화 만들기, 매체 이용 그리기,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이뤄진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물을 조합해 풍경화를 만들어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그림, 알루미늄과 철사 등을 재료로 입체 만들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 세계자연유산 만화 공모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사)제주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 만화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3관왕 제주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1-8컷 분량의 만화를 4절 자유 용지에 표현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10월 2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입상작은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 '난민의 제주살이' 콜로키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은 이달 22일 오후 5-7시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난민의 제주살이'를 주제로 '2021 쿼다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예멘과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 모두우리 네트워크의 최우찬 사무국장, 김진진 학술연구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살기 위한 여정 속에 다다른 제주에서 난민들이 살아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콜로키움은 탐라문화연구원 쿼다인문학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umda2019)으로 중계된다. 문의 754-2336.

## 태양광 지원사업 상시 예비접수중

지금 전화로 상담하십시오!

###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2021년도 상반기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고 성원해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원사업 수혜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